

미래 디지털 창의인재 양성

전주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AI 로봇 활용 창의융합체험 코딩캠프' 참여자 모집... SKT와 협력해 초등학교 128명 대상 총 4회 무료 교육

전주시가 국내 무선통신 선도기업인 SKT와 손을 맞잡고 미래 디지털 창의인재를 양성에 나선다.

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AI 로봇 활용 창의융합체험 코딩캠프'에 참여할 초등학교(4~6학년) 128명을 모집한다.

민선7기 후반 핵심 정책인 '디지털 교육벨리' 사업의 일환으로 SKT와 협력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IT벤처센터에서 열리는 이 캠프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총 4회 무료 교육 방식으로 기획됐다.

교육은 초등학교생들이 코딩기술에 필요한 논리력, 컴퓨팅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액티비티 형태로 진행된다.

진흥원과 SKT는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활용해 ▲환경문제 해결 ▲코로나바이러스 퇴치 ▲AR기술 ▲자율주행자동차 등 4가지 체험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jca.or.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shim@jca.or.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ICT융합

사업단(063-281-4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와 SKT는 디지털 인재양성 및 디지털전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연내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SKT가 개발한 수준 높은 교육 커리큘럼을 지역 청소년들에게 교육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계기로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한지로 희망을 꿈꾸다' '제24회 전주한지문화축제' 성료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지를 통해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열린 전주한지문화축제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전주시와 전주한지문화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김선태)가 지난달 18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막을 올린 '제24회 전주한지문화축제'가 17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지난 4일 폐막했다.

"전주한지로 희망을 꿈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한지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자리로 꾸며졌다.

행사가 진행된 한국전통문화전당 주변에는 한지 조명등과 폐품으로 만든 대형교래 조형물, 한지 대형나비, 천사

날개 등 다양한 포토존이 설치돼 추석 연휴기간까지 시민들을 위한 휴식과 힐링의 장소가 됐다. 포토존 사진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한지 액자가 제공됐다.

또 한지작품 전시장에서는 제1회 지승공예대상인 김혜미자 작가의 '3층장'과 제2회 기타부문 대상인 김현지·소희 작가의 '지승, 짜여짐' 등 다양한 수상작들이 전시됐다.

지난 1997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주한지문화축제와 한지공예대전 역대 포스터들도 소개돼 옛 추억을 소환했다.

관람은 코로나19 여파로 회차별, 공간별로 인원 수를 제한해 운영됐다. 이와 함께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는 신협어부바 인형과 한지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으며, 예담공예에서는 한지 조명등 만들기 체험을 통해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전주한지문화축제 유튜브 채널에는 한지 분야 산업체와 한지공예 체험, 전주한지장인 이야기 등 다양한 콘텐츠가 올려져, 축제기간 조회 수 7000회를 넘어이기도 했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추진됨에 따라 전주한지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있다"면서 "내년에는 전주한지문화축제를 보다 다채롭게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가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위한 업무협약

전주시-에코시티·혁신도시 아파트 관계자-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송천KCC스위첸 아파트·혁신 호반베르디움 1차 아파트에 조성해 11월부터 운영

전주시가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시 지역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한다.

시는 5일 대우빌딩 7층 회의실에서 에코시티 송천KCC스위첸 아파트, 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 1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와 정유진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코시티 송천KCC스위첸 아파트와 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 1차 아파트는 단지 내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며,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운영전담기관으로서 협력하게 된다. 시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을 뒷받침한다.



전주시는 5일 대우빌딩 7층 회의실에서 에코시티 송천KCC스위첸 아파트, 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 1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와 정유진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너들 돌볼 공간으로, 이날 협약으로 기존 서신동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해 총 3개로 늘어나게 됐다.

서신동 공동육아나눔터는 12개의 품앗이 공동체 활동과 주 2회 이상의 놀이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간 9,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시명에 전주시 여성가족과장은 "미래 세대를 위해 소중한 공간을 제공해 주신 에코시티 KCC스위첸과 혁신 호반베르디움 1차 아파트 입주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공동육아나눔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건강하고 올바른 양육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주음식 소개

시, 전주 음식문화 홍보 위한 음식전문 잡지 '전주맛' 2호 발간·배포·전자책 제공

전주시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음식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종합매거진을 제작했다.

시는 전주의 음식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음식전문 잡지인 '전주맛' 2호를 발간, 관광안내소와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에 배포하고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발간된 '전주맛' 창간호가 역사성에 중점을 둔 것과는 달리 이번 '전주맛' 2호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주음식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시는 단순 맛집 소개를 넘어 전주 음식의 역사와 문화 전반을 소개했

으며, 흥미를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주제의 글과 재미있는 사진, 일러스트 등으로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1897년 선교사 마티엠폴드가 체험하고 기록한 전주음식 ▲맛의 사색: 전주팔미와 함께 관광지 소개 ▲혼불밥상: 소설 혼불에 나온 전주음식 재현 ▲전주의 술사: 가맥, 막걸리 ▲비빔밥을 담다(유기vs돌솥) 등이 수록됐다.

특히 이번 '전주맛' 2호에서는 비빔밥의 소리를 QR코드로 담아 전주음식을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또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국제표준연속간행물



번호) 부여로 연속간행물의 의미를 더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2회 연속 인증 획득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의료정보시스템(EMR, OCS)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부분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2017년 국립대병원 최초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획득 후 이번에 2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2023년 7월

28일까지 3년간이다.

이는 전북대병원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의료기관 해킹 등 각종 보안 위협으로부터 환자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한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절차가 까다롭고 심사 항목도 총 80개에 달하는 등 갖춰야 할 조건이 많아 높은 수준의 보안 및 관리체계를

갖춰야 하며, 대량의 환자 정보를 보관 취급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조남천 병원장은 "이번 인증획득은 환자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며 "앞으로도 한층 강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환자의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추석에 버섯 따라 간 70대 실종자, 숨진 채 발견

추석에 버섯을 채취하러 집을 나섰다 실종된 70대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정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 1일 오전 8시에 지인과 함께 진안군 삼전면 한 야산에 버섯을 따러 갔다가 실종됐다.

던 정모씨(76)가 숨겨 있는 것을 소방 당국이 발견했다.

정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 1일 오전 8시에 지인과 함께 진안군 삼전면 한 야산에 버섯을 따러 갔다가 실종됐다.

그는 실종 직전 119에 전화를 걸어 "산에 왔는데 가슴이 아프다"며 체력 저하와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무진장소방서 등과 경찰은 수백여명의 인력과 구조견 등을 동원해 실종 장소로 추정되는 내용마을 뒷산을 수색해냈다.

/진안=우태만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